

#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에서 과제수행방식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

이명하<sup>1</sup> · 김현경<sup>2</sup> · 정석희<sup>3</sup> · 문인오<sup>4</sup>

<sup>1</sup>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sup>2</sup>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강사  
<sup>3</sup>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sup>4</sup>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 ***Effects of Task Performance Style in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on Problem-Solving and Nursing Competency according to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Lee, Myung Ha<sup>1</sup> · Kim, Hyun Kyung<sup>2</sup>  
Jeong, Seok Hee<sup>3</sup> · Moon, Inn Oh<sup>4</sup>

<sup>1</sup>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up>2</sup> Full-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up>3</sup>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up>4</sup> Part-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 주요어

간호교육, 학습, 문제해결,  
의사소통, 간호역량

### Key words

Nursing education, Learning,  
Professional competence,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 Correspondence

Kim, Hyun Kyung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an 2-20 Geumam-dong,  
Deokjin-gu, Jeonju-si,  
Jeonllabuk-do 561-182, Korea  
Tel: 82-63-270-3121  
Fax: 82-63-270-3127  
E-mail: kimhk@jbnu.ac.kr

투 고 일: 2011년 2월 1일

수 정 일: 2011년 2월 14일

심사완료일: 2011년 2월 15일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effects of task performance style, communication ability and their interaction on problem-solving ability and nursing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ting in a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Methods:** The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Participants were 56 fourth year nursing students (25 in the cooperative task group and 31 in the individual task group)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September 2010. Additionally, two groups were classified based on communication ability of students and four groups were classified by their task performance style and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and nursing competency were measured pre- and post-test and compared between group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dows 17.0 program. **Results:** Neither problem-solving ability and nursing competenc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ask performance style. Nursing competen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igh communication group compared to the low communication group. Problem-solving abil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four groups classified by task performance style and communication ability. **Conclusion:** Nursing educators may need to improv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to improve nursing competency and also assign different tasks based on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o improve problem-solving ability.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적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특히 임상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간호에 요구되는 다양한 이론과 기술들을 실제에 적용해 보고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을 함양할 뿐 아니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 간호교육에서 이론과 실습교육의 연계성 부족과 졸업간호사의 간호역량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간호역량이란 간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로서 간호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Jang, 2000). 따라서 임상실습교육의 목표는 간호역량 증진, 즉 간호실무에 능숙한 간호사의 육성에 두어야 하며, 간호교육자는 임상실습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간호계는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간호역량으로서 문제해결능력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건강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확하고 빠른 분석적 판단을 바탕으로 간호문제를 발견하고 그 원인분석을 통해 간호계획을 수립하며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간호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여러 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Hyun, Lee, & Kim, 2006), 간호사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웹 기반 프로그램(Kim, Bae, Kim, & Yang, 2010; Shim, 2003), 문제중심학습(Kim, Park, Chung, & Kim, 2006), 협력학습(Jang, Kim, Ryu, Kim, & Chung, 2007), 액션러닝(Kim & Kim, 2010) 등의 교수학습방법이 간호학 임상실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과제수행방식이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Jeon, 2007), 과제수행 방식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임상실습 과정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거나 소집단 내에서 함께 협력적으로 수행하면서 학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실습교육에서 이러한 과제수행방식에 따른 학습 효과의 검증 없이 보편적으로 교수자 임의대로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습효과와 관련하여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하면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 2009). 간호대학생은 실습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동안에 간호사, 환자, 보호자, 교수, 의료인, 실습 팀의 동료학생 등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용이성과 효과는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의사소통훈련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증가시켰다는 연구(Kim, 2009) 이외에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따른 학습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 학습방법 중의 하나로 임상실습 중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적합한 임상실습 과제의 수행방식을 확인함으로써 임상실습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시 과제수행방식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실습 후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따른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후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에 따른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후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연구 가설

- 1) 과제수행방식에 따라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개별과제를 수행한 집단과 협동과제를 수행한 집단간에 문제해결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개별과제를 수행한 집단과 협동과제를 수행한 집단간에 간호역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문제해결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간호역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에 따라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단 간에 문제해결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단 간에 간호역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용어 정의

##### 1) 과제수행방식

과제수행방식은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제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과 과제를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과제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란 개인이 주어진 과제를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로 혼자 수행하는 것이며( : 개별과제), 과제를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란 공동으로 주어진 과제를 팀원들 간에 상호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것( : 협동과제)이다.

##### 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이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대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의사소통행위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Wiemann, 1977), 본 연구에서는 Hur(2003)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GICC-15)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이란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 상태의 차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으로(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al Institute [KEDI], 2003), 본 연구에서는 KEDI(2003)에서 개발한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4) 간호역량

간호역량이란 간호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Jang, 2000), 본 연구에서는 Jang(2000)이 제시한 13개 간호역량을 본 연구자가 척도화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시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이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의 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J도 소재 1개 4년제 간호대학 4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4개의 실습 조 중 2개의 실습조 31명은 개별과제군으로, 다른 2개의 실습조 29명은 협동과제군으로 배정되었다. 이 중 사후조사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4명을 제외한 개별과제군 31명, 협동과제군 25명, 총 56명이 최종 연구대상자였다.

#### 3. 연구 도구

#####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Hur(2003)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척도(GICC-15)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5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개발 당시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 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KEDI(2003)에서 개발한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진단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5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개발 당시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 3) 간호역량

간호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Jang(2000)이 간호사의 임상경력 모형에서 제시한 13개의 간호역량을 본 연구자가 척도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역량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시해 주었다. 이 도구는 총 13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3이었다.

####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실험처치 및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였다.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과제군과 협동과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제군간에 자료수집 기간을 달리하여 개별과제군은 4월 12일부터 5월 7일 까지, 협동과제군은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험처치 및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를 위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를 위한 통계적 자료로만 사용될 뿐 대상자들의 성적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설명문을 함께 제공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대상자들의 임상실습과 성적 사정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여 대상자의 연구 참여 및 응답 여부가 본 임상실습 성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 1) 사전 조사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연구자가 각 조별로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사전 조사용 설문지를 배부하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을 조사하였다.

### 2) 실험처치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은 2주 동안 총 10일간 진행되었으며, 임상실습 스케줄에 따라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에 배정된 4학년 4개조 중 4~5월에 실습한 2개조는 개별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8~9월에 실습한 2개조는 협동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개별과제군과 협동과제군 모두 동일한 병원의 4개 간호단위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였으며, 실습 간호단위의 환경과 조건은 유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가 소속된 대학의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교육목표는 간호관리의 제 이론을 병원의 간호단위에 적용하여 간호업무 관리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간호역량을 함양하며 간호현장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간호업무에는 환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직접간호 업무, 의사소통과 업무조정 등의 간접간호 업무, 간호단위의 환경-물품 및 인간관계 관리 업무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에서 간호교육자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을 평가하여 증진시키며, 간호단위의 관리체계와 과정을 경험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의 교육목표는 간호대학생들의 실습경험과 능력,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기간이 10일인 점을 고려하여 간호단위의 관리자인 수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관리역량이 아닌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간호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이유는 관리역량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장기간의 임상경험과 개발과정을 통해서만 함양될 수 있으며, 간호단위의 운영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 뿐 아니라 일반간호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간호역량을 일정수

준 이상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목표에 따른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간호사와 수간호사의 역할 학습, 간호역량 평가와 개발계획 수립, 간호단위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QI) 활동, 간호관리진단과 해결방안 수립, 간호단위 운영관리의 문제파악과 개선방안 수립, 실습경험 성찰이 포함되었다. 학습목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실습내용에 대한 과제들 가운데 간호단위 QI활동과 관리진단·해결방안수립에 대한 평가점수 비중을 가장 높게 하였으며, 이들 과제의 수행방식에 대한 처치를 제공하였다. 즉, 대상자 중 2개조에게는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고(개별과제군), 다른 2개조에게는 협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협동과제군) 하였다. 각 간호단위별로 4~5명의 간호대학생이 배정되었으며, 협동과제군은 하나의 간호단위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해당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개별과제군과 협동과제군의 실습 오리엔테이션, 과제의 지도와 집담회 등의 모든 실습지도는 연구자가 실습지도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일정한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간호단위의 임상현장지도자인 수간호사나 간호사들은 실습학생이 두 군 중 어떤 군에 속하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 3) 사후 조사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이 종료된 후 사전 조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을 측정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변수에 대한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2) 과제수행방식, 의사소통능력 및 그 상호작용에 따른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후의 문제해결능력 과 간호역량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각 집단 간에 사전에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변수를 공변수로 처리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 3)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 6.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는 J도 소재 1개 대학의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시간 중에 수행되었기에 실험기간이 10일

이었고,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구분한 4개 집단 중 최소 집단수가 11명으로 임상실습교육의 특성이나 개인적 특성이 다른 대상자에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 2) 본 연구의 설계는 시차설계로 개별과제군과 협동과제군의 측정시기가 달라 협력과제군의 성숙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사전 동질성 검정

연구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을 위해 개별과제군과 협동과제군 간에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t=-1.121, p=.267; t=-1.092, p=.280$ ).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군과 낮은 군 간에 문제해결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하였으나( $t=-1.956, p=.056$ ), 간호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3.747, p<.001$ ).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분류한 4개의 집단에서, 문제해결능력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하였으나( $F=1.843, p=.151$ ), 간호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5.302, p=.003$ ) (Table 1).

### 2. 가설 검정

- 1) 제 1 가설: 과제수행방식에 따라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전 동질성이 확인된 개별과제군과 협동과제군 간의 임상실습 효과의 차이를 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한 결과 제 1 가설은 기각되었다(Table 2).

- 1-1) 과제수행방식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협동과제군이 개별과제군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331, p=.189$ )

- 1-2) 과제수행방식에 따라 간호역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협동과제군이 개별과제군에 비해 간호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t=-0.715, p=.478$ ).

- 2) 제 2 가설: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능력에 따른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의 효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중위값 (median) 이상인 경우는 높은 의사소통군으로, 중위값 보다 낮은 경우는 낮은 의사소통군으로 구분한 다음 동질성 검정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던 사전 간호역량점수를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제 2 가설은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roups

(N=56)

Groups*	n	Problem-solving ability			Nursing competency			Communication ability		
		Mean(SD)	t	p	Mean(SD)	t	p	Mean(SD)	t	p
Collaborative task	25	157.68(13.39)	-1.121	.267	48.36(7.19)	-1.092	.280	53.44(8.55)	0.595	.555
Individual task	31	157.30(15.23)			46.42(6.10)			54.63(6.31)		
High communication <sup>†</sup>	26	159.46(14.94)	-1.956	.056	50.54(5.26)	-3.747	<.001			
Low communication	29	151.96(13.21)			43.48(6.57)					
High-com/Colla-T	11	163.45(11.01)	1.843	.151	51.91(3.96)	5.302	.003			
High-com/Indiv-T	14	156.53(17.04)			49.53(5.96)					
Low-com/Colla-T	15	153.14(13.69)			45.57(8.03)					
Low-com/Indiv-T	15	150.79(13.13)			43.47(4.91)					

\* High-Com/Colla-T: High Communication & Collaborative Task, High-Com/Indiv-T: High Communication & Individual Task, Low-Com/Colla-T: Low Communication & Collaborative Task, Low-Com/Indiv-T: Low Communication & Individual Task,

† Missing was excluded.

(Table 2) Comparison of outcomes after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between two groups classified by task performance style

(N=56)

	Collaborative task (n=25)		Individual task (n=31)		t	p
	Mean(SD)	Mean(SD)	Mean(SD)	Mean(SD)		
Problem-solving ability	164.92(13.02)	159.42(16.66)	159.42(16.66)	159.42(16.66)	-1.331	.189
Nursing competency	48.12( 4.91)	47.13( 5.35)	47.13( 5.35)	47.13( 5.35)	-0.715	.478

〈Table 3〉 Comparison of outcomes after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between two groups classified by communication ability (N=56)

Source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	Descriptive statistics*	
						Groups	Mean(SD)
Problem-solving ability	Pre-nursing competency	384.36	1	384.36	1.865	.178	
	Communication group	750.98	1	750.98	3.643	.062	High Communication 167.96(11.32)
	Error	10513.36	51	206.14			Low Communication 156.79(16.72)
	Total	1429100.00	54				
Nursing competency	Pre-nursing competency	428.68	1	428.68	37.61	.000	
	Communication group	78.70	1	78.70	6.90	.011	High Communication 50.54(4.08)
	Error	592.75	52	11.40			Low Communication 44.97(4.65)
	Total	126064.00	55				

\*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of 2 groups.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2-1)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높은 의사소통군이 낮은 의사소통군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았지만, 공변량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3.64, p=.062).

2-2)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간호역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높은 의사소통군이 낮은 의사소통군에 비해 간호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공변량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90, p=.011).

3) 제 3 가설: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에 따라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에 따른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을 높은 의사소통-협동과제군, 높은 의사소통-개별과제군, 낮은 의사소통-협동과제군, 낮은 의사소통-개별과제군의 4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전 간호역량점수를 통제된 후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 3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3-1)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높은 의사소통-개별과제군, 높은 의사소통-협동과제군, 낮은 의사소통-협동과제군, 낮은 의사소통-개별과제군의 순으로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공변량분석 결과 4개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3.230, p=.030).

3-2)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에 따라 간호역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높은 의사소통-협동과제군, 높은 의사소통-개별과제군, 낮은 의사소통-협동과제군, 낮은 의사소통-개별과제군의 순으로 간호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공변량분석 결과 4개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2.257, p=.093).

〈Table 4〉 Comparison of outcomes after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among four groups classified by task performance style and communication ability (N=56)

Source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	Descriptive statistics*	
						Groups <sup>†</sup>	Mean(SD)
Problem-solving ability	Pre-nursing competency	257.09	1	257.09	1.340	.253	High-com/Indiv-T 168.67(12.34)
	Com-task group <sup>‡</sup>	1859.97	3	619.99	3.230	.030	High-com/Colla-T 166.90(10.12)
	Error	9404.37	49	191.93			Low-com/Colla-T 163.50(14.97)
	Total	1429100.00	54				Low-com/Indiv-T 150.53(16.25)
Nursing competency	Pre-nursing competency	406.32	1	406.32	34.35	<.001	High-com/Colla-T 51.45( 3.36)
	Com-task group	80.08	3	26.69	2.257	.093	High-com/Indiv-T 49.87( 4.53)
	Error	591.38	50	11.83			Low-com/Colla-T 45.50( 4.35)
	Total	126064.00	55				Low-com/Indiv-T 44.47( 5.01)

\*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of four groups.

† High-Com/Colla-T: High Communication & Collaborative Task, High-Com/Indiv-T: High Communication & Individual Task, Low-Com/Colla-T: Low Communication & Collaborative Task, Low-Com/Indiv-T: Low Communication & Individual Task.

‡ Com-Task group: group classified by communication ability and task performance style

## 논 의

본 연구는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에서 과제수행방식, 의사소통 능력 및 그 상호작용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중 협동과제를 수행한 집단과 개별과제를 수행한 집단 간에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가 없어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선행연구에서 협동학습이 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eong & Shin, 2004; Jang et al., 2007; Kim, Yoon, Choi, Park, & Bae, 2008), 개별학습에 비해 협동학습시 학생들의 학습효과나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Jeon, 2007; Jeong, 2003; Lim, Choi, & Noh, 1999)와 본 연구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과제수행방식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의 차이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며,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여 과제수행방식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비교하는 추후연구의 실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후 간호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이 임상실습 후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간호역량의 차이를 보인 것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이 간호역량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며, 의사소통능력이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o, 2009; Oh, 2007)의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의사소통능력은 어느 정도 타고난 속성(trait)이기도 하지만 환경적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해 나가는 능력(competence)의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McCroskey & Daily, 1987),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상실습 후 문제해결능력은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해결중심 의사소통훈련 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Kim(200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과제수행방식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구분한 4개의 집단 간에 문제해결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상실습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은 과제수행방식이나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의사소통능력과 과제수행방식을 결합시켰을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즉 문제해결능력은 높은 의사소통-개별과제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높은 의사소통-협동과제군, 낮은 의사소통-협동과제군, 낮은 의사소통-개별과제군의 순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개별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이 협동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학생은 협동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원 간의 상호협력과 공동책임, 팀원의 입장 고려와 관점 반영, 최선의 대안이 아닌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집단의사결정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달리 개별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학생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와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협동과제를 수행한 집단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더욱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협동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이 개별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학습에 비해 협동학습을 했을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았다는 Lim 등(199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주변으로부터 자원이거나 도움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개별과제를 통한 학습보다는 협동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원들 간의 상호작용, 역할분담과 협동학습 등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지만,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개별과제보다 협동과제를 부여해주어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간호관리학 임상실습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실습시작 전에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할 후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협동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협동과제보다 개별과제를 수행할 경우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협동과제보다 개별과제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간호관리학 임상실습교육에서 실습과제의 수행방식의 효과에 대한 반복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간호관리학 임상실습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교육을 통해서 문제해결능력 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능력을 함양시켜야 하므로

특정 간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둔 다른 임상실습교육에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협동학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태도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학습하고 사회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학습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거 중심의 임상실습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의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능력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임상실습 교과목에서 과제수행방식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과제수행방식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추후연구의 실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 결 론

본 연구는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에서 과제수행방식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문제해결능력과 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간호역량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개별과제군,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협동과제군,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협동과제군,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개별과제군의 순으로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다.

간호관리학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은 실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간호교육자가 임상실습교육에서 특정 과제수행방식이나 학습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했을 때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Cheong, M., & Shin, K. (2004). The effects of the project-based learning on improvement of creative thinking, creative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3), 287-301.

Hur, K.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26.

Hyun, M., Lee, J., & Kim, J. (2006).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on problem-solving ability and

dysfunctional attitude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2), 144-151.

Jang, K. S. (2000).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linical career development model of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Jang, K. S., Kim, N. Y., Ryu, S. A., Kim, Y. M., & Chung, K. H. (2007). Effects of collaborative learning on problem-solving processes according to the level of metacogni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2), 191-198.

Jeon, J. O. (2007). *Effect of mission performance style in an online game on social problem solving by learner's soci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Jeong, E. (2003). Effects of individual and cooperative learning based creativity development programs on college student's creativit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1), 281-297.

Jo, I. (2009). Effect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social network centralities on learning performance in a college-level collaborative learning situation.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0(2), 77-98.

Kim, H. M. (2009).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4), 399-408.

Kim, K. K., Yoon, J., Choi, K. Y., Park, S. Y., & Bae, J. H. (2008). The effect of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project learning on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2), 252-261.

Kim, Y., Bae, Y., Kim, S., & Yang, J. (2010). The effects of web-contents learning for adult-care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5-13.

Kim, Y., & Kim, Y. (201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ction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6), 312-322.

Kim, Y., Park, Y. S., Chung, C. W., & Kim, M. (2006). Applic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PBL) for students' practice in maternity nursing.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2(4), 326-337.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al Institute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al Institute.

Lim, H., Choi, K., & Noh, T. (1999). The effects of cooperative and individual learning strategies by the level of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19(1), 137-145.

McCroskey, J. C., & Daily, J. A. (1987).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 SAGE.

Oh, Y. J. (2007).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theory of transfer of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Shim, J. K. (2003). *The development of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web-based instruction: Application to nursing management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Wiemann, J. M. (1977). Explication and test of a model of communicative compet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3), 195-213.